

-(으)면 안 되다

~하면 안 된다, 허용되지 않는다

허락 표현 쪽에서 거절에 해당하는 쪽입니다. 글자 그대로는 '그것을 하면 안 된다'는 뜻으로, 한 사람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비인칭적으로 말하는 규칙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받침 없음	-면 안 되다	가다 → 가면 안 돼요
받침 있음	-으면 안 되다	먹다 → 먹으면 안 돼요
ㄹ 받침	ㄹ 유지	만들다 → 만들면 안 돼요
격식체	-(으)면 안 됩니다	들어가면 안 됩니다
직접 요청	-지 마세요	들어가지 마세요
불필요	안 -아/어도 되다	안 가도 돼요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 방법은 일반적인 -(으)면규칙을 따르며, ㄹ 어간은 ㄹ을 유지합니다. 만들다는 만들면 안 돼요.

가 됩니다. 이 표현은 금지를 말하는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세상의 사실로 제시합니다: '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'는 '여기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'는 규칙으로 들립니다. 이와 달리 -지 마세요는 말하는 사람이 직접 상대방에게 그만하라고 요청하는 표현입니다.

가장 흔한 용법은 허락을 묻는 질문에 부정으로 답하는 것입니다. -아/어도 되다는 단순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비슷해 보이는 다른 표현에 주의하세요. 안 -아/어도 되다는 '하지 않아도 된다(불필요)'는 뜻으로, 금지와는 정반대입니다.

■ 예문

- 1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.
- 2 수업 중에 자면 안 돼요.
- 3 이걸 만지면 안 돼요.
- 4 늦으면 안 되니까 서두르세요.
- 5 약속을 잊으면 안 됩니다.
- 6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.

■ 비교

-지 마세요
-지 마세요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하는 요청이고, -(으)면 안 되다는 규칙을 전달합니다. 안내문이나 규정에서는 후자를, 친구가 그만하라고 할 때는 전자를 씁니다.
여기에 주차하지 마세요. (직접 요청) /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. (허용되지 않음)

-아/어도 되다
두 표현은 질문과 거절로 짝을 이루지만,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. 이 반대칭이 한국어 허락 표현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.
가도 돼요? → 네, 가도 돼요. / 아니요, 가면 안 돼요.

-아/어야 되다
의무와 금지는 서로 반대입니다. 하나는 해야 한다, 다른 하나는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. '하지 않아도 된다(불필요)'는 둘 다 아니며, 안 -아/어도 되다로 나타냅니다.
가야 돼요. (가야 한다) / 가면 안 돼요. (가면 안 된다) / 안 가도 돼요. (가지 않아도 된다)

■ 주의

- ✗ 이 음식을 만들으면 안 돼요.
- 이 음식을 만들면 안 돼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일반 -(으)면과 똑같이 ㄹ을 유지하고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.
- ✗ 안 가면 돼요. — '가면 안 된다'는 뜻이라면 (✗)
- 가면 안 돼요.
안의 위치를 옮기면 '가지 않으면 된다'는 뜻으로 바뀝니다. 부정은 본동사가 아니라 되다에 붙어야 합니다.
- ✗ 숙제를 안 하면 안 돼요? — 숙제를 안 해도 되는지 물을 때 (✗)
- 숙제를 안 해도 돼요?
이중 부정은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혼란스럽습니다.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을 때는 안 -아/어도 되다를 쓰세요.